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다이이치생명, 상장이후 주가부진 이어져

□ 올해 초 대형 생명보험회사로는 최초로 상장해 관심을 모았던 다이이치생명(第一生命)의 주가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.

- 지난 4월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다이이치생명은 상장 당시 업계 2위 이자 대형 생명보험회사로는 최초의 주식상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음.*

*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2010.3.8자 '다이이치생명, 주식시장 상장 관심 고조' 편 참조

- 상장 초기 주가가 16만 엔까지 상승했으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6월에 공모가 14만 엔을 하회한 이후 8월 26일에는 처음으로 10만 엔이 붕괴되는 등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.

□ 전문가들은 다이이치생명의 주가 부진의 요인으로 세계 주식시장의 침체, 실적 하락, 미래 성장동력 부재를 지적하고 있음.

- 다이이치생명의 주가 부진은 주로 세계 주식시장이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에 따른 투지심리 위축 등으로 침체 기조가 지속되는 데 기인함.
- 그러나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나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고, 특히 국내시장 포화로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- 전문가들은 다이이치생명의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하락한 만큼 주식시장이 반등하면 어느 정도 주가회복이 가능하겠지만, 본격적인 주가상승을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주력상품인 변액보험 및 단체보험의 실적 호조가 관건으로 보고 있음.

(NSJ 일본증권신문, 8/30)